

# Gyeongseo Park

✉ gyeongseo944@gmail.com

☎ 01058007433 | 📅 1994년생 | 🏠 1년차

## 기술스택

react node.js sequelize socket.io javascript java spring framework  
mariadb mongodb oracle jquery css 3 html5 git expressjs

## 경력

총 7개월

### 브이알에듀

SMART본부/연구원

2021.06 - 2022.01 / 7개월

css 3 node.js html5 javascript socket.io mariadb  
chart.js sequelize

socket io를 이용한 데이터 실시간 통신  
chart.js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개발  
node.js와 nunjucks를 이용한 웹 개발

## 학력

한국영상대학교 / 대학(2,3년)

연기과3년제

2018.02

학점 3.02/4.5

## 링크

<https://re-movieview.herokuapp.com/>

개인 프로젝트 remoview의 배포링크

<https://personal-webpage-beryl.vercel.app/>

개인 프로젝트로 제작한 개인 포트폴리오 웹 페이지

<https://actors-academy.vercel.app/>

개인 프로젝트 react JS를 이용한 학원 소개 홈페이지

<https://github.com/gyeongseo944>

---

교육이력

**스마트 웹&콘텐츠 개발자 양성과정**

구디아카데미

2020.03 - 2020.09

자바기반 스마트 웹&콘텐츠 개발자 양성과정

1. Front-End(UI) Development : Html, CSS, Javascript JQuery를 이용한 화면 개발
  2. RDBMS : Oracle SQL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3. Web Development : Java, JSP, SPRING Framework를 활용한 웹 개발
- 등의 교육내용

---

자격증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10

---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발전하는 시대와 기술에 발맞춰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분야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처지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귀사와 해당 업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발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

노력이 곧 기술이 되는 직업 특성에 끌렸습니다.

학생 때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보면서 일 눈치 좋고 사람을 대하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어 많은 일을 도맡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서비스업의 특성상 결국 저에게 남는 게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일하면서 목표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없으니 업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아갈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서 개발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협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개발이란 업을 하며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지만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개발 교육 과정을 들으며 지금까지 느꼈던 회의감이나 불안함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는 직업이지만 노력한 만큼 기술과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개발자로 첫 실무에 참여하면서 개발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닐지 작은 오류에도 돌아돌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도 했지만 알아있는 시간만큼 결과물로 돌아오는 것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을 향한 과정도 제 자산이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부족함은 제 노력으로 채울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직업이기에 개발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개발 프로젝트**

첫 실무 프로젝트였던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입니다.

개발자로 취직하여 처음 맡게 된 실무이기도 하고 처음 사용하게 된 기술이 많은 프로젝트이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실무에 투입이 되어 치열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다행히도 배움에 느린 편은 아니기에 어떻게든 진행할 순 있었지만 주로 사용했던 nunjucks와 node.js, maria db, socket io 등이 모두 처음으로 다뤘던 기술들이라 보니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할까 싶었던 기능들을 빠듯했던 일정 내에 구현할 수 있어서 보람도 많이 느꼈던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적은 인원으로 진행했기에 프로젝트에 이 부분만큼은 오롯이 저 혼자 담당했고 이 파트만큼은 온전히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저 뿐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란 분야를 다루면서 데이터를 알게나마 분석해 보고, 눈에 보이는 차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보다 파악하기 쉽게 구현을 하는것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를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프론트를 nunjucks와 html로만 구성을 하다 보니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하는데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기도 했던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는 프로젝트였지만 여러모로 배움을 많이 주었던 프로젝트입니다.

---

## 성격의 장점과 단점

적응력은 강한 편이지만 감정 변화에는 약한 편입니다.

크고 작은 장점 중에서 가장 자랑하는 장점은 바로 적응력입니다. 눈치, 순발력, 습득력 등등의 여러가지 능력이 맞물려야 비로소 적응력이 강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번의 워킹 홀리데이 경험이 있습니다. 히라가나도 모른 채 일본에 가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입국하자마자 당한 집 사기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캐나다 생활임에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적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몫만큼은 온전히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런 부분과 경험들이 제 적응력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줍니다.

남 우는 걸 못 보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괜히 저까지 눈물을 흘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하면 공감 능력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감정 변화가 크고 마음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편이라 마음이 약하다는 말에 굳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보다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 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긍정에서 부정 변화가 빠른 만큼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도 빠른 편입니다. 감정을 털고 일어나는 것이 빠릅니다. 마음이 약해서 눈물을 못 참는 거라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참지 못할 눈물은 빠르게 흘려보내고 빠르게 일어서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단점의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